

기상악화·저수온현상에 고등어 ‘품귀현상’

9월 위판량 52t 불과… 지난해 동기 대비 1/37 수준
채낚기어선 1일 10kg 잡고 식당가도 비축물량 소진

‘국민생선’ 고등어가 올해 잇단 태풍 등의 기상악화와 최근 저수온현상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며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식당가에서는 활 고등어 공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횡감이나 조림용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9월 연근해 어업 생산량’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태풍 ‘링링’·‘타파’·‘미탁’ 등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며 어획량이 급감했다.

제주관광 아카데미 교육 수강생 모집

온라인 광고 등 5개 과정

제주관광공사는 6일부터 관광종사원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아카데미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은 오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어지며 모집 인원은 한 과정당 선착순 30명이다.

신청은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교육은 올해 상반기 도내 관광사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만든 ‘관광종사원

다. 9월 어획량 기준, 지난해 13만 6000t에서 지난 9월 7만7000t으로 절반 수준이다.

주요 어종별 어획량은 멸치 2만 2000t, 고등어 8200t, 오징어 6700t, 전갱이 5200t, 갈치 4100t, 꽃게 4100t 등이다. 특히 고등어는 전년 동기 대비 58% 급락했으며, 지난 8월 어획량도 7300t에 그쳤다.

제주도가 최근 내놓은 ‘9월 연근해 어선어업 동향’에 의하면 9월 기준 고등어 위판량은 지난해 1945t에

서 올해는 52t으로 1/37 수준이다. 이에 따른 위판액은 지난해 16억 6900만원에서 올해 1억7300만원으로 급락했다. 또한 1~9월 누계기준 위판량은 지난해 6100t에서 올해 2208t으로, 위판액은 작년 80억6800만원에서 올해 51억500만원으로 크게 내려앉았다.

태풍 등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주요 어종인 제주도 주변 해역~서해 중부해역에 걸쳐 수온이 1~2℃ 낮아지는 저수온현상이 나타나면서 어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생산량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시수협 관계자는 “도내 채낚

기 어선의 경우, 하루 1박스(10kg 기준)를 잡는 게 전부”라며 “선망조업이 작년에는 많았는데 최근 저수온 현상 등의 이유로 올해 고등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제주시 서부두에 위치한 조림전문 식당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고등어 생물은 구경하기 힘들고, 특히 활어로 횡감을 구하기는 더 어렵다”며 “현재 비축물량으로 손님상을 차리고 있는데 최근 고등어 대신 삼치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9월 위판량은 고등어를 비롯해 제주의 주요 어종인 갈치, 참조기, 옥돔, 멸치, 삼치 등을 중심으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백영탁기자



“달콤한 제주 레드 키위 맛보세요”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제주도산 레드 키위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4일까지 그린·골드 키위에 비해 당도가 약 20% 높은 레드 키위를 판매한다. 연합뉴스

매력 떨어진 제주부동산… 경매시장 ‘냉랭’

10월 낙찰률·낙찰가율 반등세 못타며 하위권 주택 오르고 토지 부진

부동산 및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제주지역의 10월 경매시장도 여전히 냉랭했다.

6일 지지옥션의 ‘10월 지지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경매시장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

다. 10월 성적은 낙찰률 30.4%, 낙찰가율 63.1%로 전국평균 32.2%와 70.3%에 견줘 저조하며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월 대비 낙찰률은 0.2%p, 낙찰가율은 4.7%p 올랐지만 반등세를 타지는 못했다.

제주에서 10월 한달간 부동산 247건이 법원 경매에 나왔고 이 가운데 75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으로 전국 평균 4.0명에 비해 다소 적다.

다만 도내 주거시설의 경우 전국

적인 증가세와는 달리 진행건수가 13건 줄어든 반면 낙찰건수는 늘며 낙찰률은 전월보다 7.4%p 오른 37.6%를 기록했다. 오랜만에 전국평균(34.4%)을 넘어섰다. 낙찰가율도 4.5%p 오른 69.2%로 70%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하지만 도내 업무상업시설의 낙찰률은 11.1%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그쳤다. 낙찰가율도 52.0%로 4.1%p 가장 회복했지만 여전히 낮다. 토지 낙찰률 33.3%과 이에 따른 낙

찰가율은 60.9%로 모두 4%p대로 하락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10월중 제주지역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도 아라1동 소재 전으로 28억원에 낙찰됐다. 2위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임야로 21억원에 거래됐고,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임야 낙찰가가 11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물건은 제주도 구좌읍 소재 주택으로 응찰자가 20명에 이른다. 2위는 제주도 애월읍 소재 다세대로 17명이, 3위는 제주도 화북1동 소재 아파트로 15명이 각각 입찰 경쟁을 벌였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위안화 환율 7위안과 영향

무역협상 따른 환율 변동 주시해야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해 7.22위안으로 상승했던 위안화 환율이 최근 7위안 부근까지 하락했다. 11월 5일에는 장 중 위안화 환율이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위안화 환율이 하락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 실무협상에서 1차 합의에 이르렀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서명만이 남은 것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협상이 원만히 진행된 이후 양국 정부의 1단계 합의 서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부터 위안화/달러 환율은 이미 10월부터 하락(위안화

강세)을 보였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예상보다 더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월에 양국 정상회담이 1차 합의에 서명하고 12월에 예정된 추가 관세뿐만 아니라 일부 관세까지 철회한다면 위안화 환율은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서명이 예정됐던 칠레 APEC 회의가 취소된 이후 아직 정상회담이 언제 진행될 지 구체적인 일정이 안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1차 서명이 현실화되기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1차 협상에 서명한다면 하더라도 이후 추가 협상에서 지

美 추가 금리인하·중 경기부양 정책도 고려
원달러 환율·외국인 투자자에 영향력 높아

달러당 7위안으로 상승했던 위안화 환율이 최근 7위안 부근까지 하락했다. 위안화 환율이 하락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 실무협상에서 1차 합의에 이르렀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서명만이 남은 것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협상이 원만히 진행된 이후 양국 정부의 1단계 합의 서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부터 위안화/달러 환율은 이미 10월부터 하락(위안화

적재산권과 산업보조금 등 중국 경제 구조와 관련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경우 이번 1차 협상처럼 원활한 합의에 이르게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 미 연준이 당분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만큼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 방식과 강도를 어느정도 진행할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안화/달러 환율의 경우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높고 최근 국내증시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높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위안화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향후 진행될 중국정부의 부양책과 미중 무역협상 전개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주시해야 한다.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원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범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범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 복

동 부 공 인 중 개 사

☎ 010-2800-4595
064-747-5115

※ 이도동 칼호빌동측 대 192㎡
주택80㎡ 3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매가50㎡ 5억
• 해안동 생관임야(목장) 맹지28,842㎡ 6억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점 168㎡ 3억

• 애월수산물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9억원
• 한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430㎡ 1.5억
• 관포 바다경관 곳 자연녹지 3028㎡ 6.4억원

※ 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

• 증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9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 우도하수구동해수정인근 10,323㎡ 12.5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오리지널의 공식대로 The Original dimchae®

위니아 덩채 전품목 할인행사

덩채는 각방마다 냉각기가 하나씩!
업계 유일 4by4 룸별 독립냉각

하나의 덩채로 네대의 덩채를!

(주)대유위니아 제주점

전시장 : 제주시 북성로 27(삼도이동)
T. 721-9095~6, 755-9095, F. 755-9096

BDQ57DKNXS
노바실버(메탈)

WDT33DPGYSS
슬릭워브실버(유리)

BDL22DJSHS
헤이즈실버

BDL18DETRSS
루센트실버

오리지널 덩채®

취급품목

김치냉장고 덩채®

프리미엄 냉장고 PRAUD®

에어콘 (가정용, 업소용, 천장형)

냉·난방기 (초절전버터방식, 히트펌프식)

덩채® (버전기압력밥솥)

에어워셔 (기습, 제습, 제균, 청정)

세탁기, 건조기

제습기, 공기청정기